

8 뒤늦은 부고 - 고 권대희 씨를 기리며

청년 권대희, 희망은 내겐 잠들지 않는 꿈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오늘도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은 서로에게 빛나는 꿈을 속삭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씩 목표를 실현해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정에 꿈을 두고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삶도 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던 사람. 때로는 시험과 과제, 혹은 현실의 벽과 씨름하던 학생. 그는 우리 모두를 닮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생전에 적었다는 버킷리스트에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이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소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한 청년의 소망을 담아 뒤늦은 부고를 전합니다.

권대희 씨는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일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국가를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교실에서 하루하루 그 꿈을 키워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에 나라를 지킨 영웅이 나오면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진지한 목소리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토론회에 나가 청년으로서 바라본 사회를 당당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외교관 등 여느 20대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그는 대학시절 내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본인의 꿈인 외교분야 대외활동에 참여했으며, 주어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에 쫓겨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본인의 꿈을 놓지 않더라는 친구의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그를 "평범한 학생이자 따뜻한 청년"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학교 홍보대사였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생전에 남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20대의 모습'으로 홍보대사로 보냈던 시간을 꼽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권대희 씨는 그만큼 학교를 아끼고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잠시 일했던 곳의 직원들까지 그의 사진을 들고 와 권 씨의 마지막을 지켰을 정도로, 그는 지나온 길에 감동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권 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차근차근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힘들게 자격증을 따낸 그가 자랑스러워, 그의 어머니 이 씨는 자격증에 적힌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을 다하던 사람, 또 어머니에겐 친구이자 세심한 아들이었던 권대희 씨. 그가 동시에 여러 역할을 해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권 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 씨는 아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세상에 기억할 수 있는 선한 이름을 남기자'는 소망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가 바쁘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를 위한 일을 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의 소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씨는 그의 납골함 옆에 다짐을 적어두고 왔습니다. 세상에 선한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그의 소망을 이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권 씨는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집도의가 수술실을 떠나는 모습과, 간호조무사가 수시로 눈 화장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인 '권대희 법'을 만드는 것이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고 권대희씨는 생전에 남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20대의 모습'으로 홍보대사로 보냈던 시간을 꼽기도 했다.

“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따뜻했던
나에게 소중했던
기억속의 행복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따스했던
희망은 내겐 잠들지
않는 꿈

- 규현 노래,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 中

”

니다. 평소 정의를 꿈꾸던 그가 하늘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억울함을 막는 일일 것이라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날에도 이 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5년 간 소송과 입법을 위해 싸워온 이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고단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 권 씨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본인의 희망을 이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그가 눈을 감아도 그의 희망만은 잠들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노랫말을 아들의 목소리 삼아 이 씨는 긴 여정을 벼텨왔고, 20

대 국회를 넘지 못했던 '권대희 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권 씨가 다시 부대로 복귀할 때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곁으로 말은 안했지만, 유독 점이 많던 권 씨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안타까워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독 사람을 좋아했다는 그의 마지막 길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면서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싶다던 한 청년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해, 그의 희망 또한 잠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